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2호(2019): 37-52

접수일(2019년 4월 29일), 수정일(2019년 6월 13일), 게재확정일(2019년 6월 18일)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19.15.2.37>

군 장병의 성희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선 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박 현 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범죄학과 박사수료)

군 장병의 성희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선 영* · 박 현 나**

요 약

군대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문제제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이 성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군 장병의 성희롱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499명의 군장병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일상적 긴장이 높을수록, 음주/회식이 잦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낮았으며,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장병의 일상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시행, 성평등 의식을 강화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음악/미술/스포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행, 군 장병들의 의견을 고려한 건전한 음주/회식문화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성희롱, 군인, 인식, 성평등 의식, 공감능력

Factors Affecting Soldiers'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Criminal Psychology

Sun-Young, Park* · Hyeon-Na, Bak**

ABSTRACT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soldiers'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factors affecting their perceptions. It has been considered that sexual harassment in the military is prevalent, while it is the most difficult place to report the incid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view,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age, gender, position, service period, marital status, having children, having daughter, having sisters, religion, religious faith, and economic status), military life satisfaction, drinking/congregate dining, empathy, self esteem, general strain, self control and gender equality were constru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Using self-administered survey method, 499 soldiers in the military were participated in survey.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average of respondents'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4.39 was higher than

* 조교수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제1저자)

** 박사수료 /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범죄학과(교신저자)

* Assistant professor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Hansei University(First Author)

** Doctoral candidate / Department of Criminology at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Corresponding Author)

median value(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a respondent with a higher empathy level and gender equality level is more likely to demonstrate higher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while a respondent with higher level of general strain and frequent drinking/congregate dining is more likely to demonstrate lower level of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Based on research results, implementing various leisure activities aiming at alleviating soldiers' general strain,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enhancing gender equality level, introducing music, art and sports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empathy level and developing strategic plans for establishing wholesome drinking/congregate dining cultures in the military were provided as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sexual harassment, soldiers, perception, gender equality, empathy level

1. 문제제기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사회 내 다양한 집단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2012년과 2018년에 각각 군대 내 업무용 단톡방에 남군들이 음란물을 공유하고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던 사건[1], 2018년 7월 육군 장성이 부하여군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건[2] 외에도 2000년 이후 군대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 남성 간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3]. 그러나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군대 내 성관련 사건사고는 그 어떠한 집단보다도 더 은폐되고 간과되고 묵인되어왔다[1].

군대내 성범죄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폐쇄성과 위계질서로 인해 군대 내 성희롱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군대 내 성희롱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쇄적이며, 집단적이며,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1][4][5][6].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조사에서도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율은 5.6%에 그쳤다[7].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로 인한 변화가 쉽게 감지되어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점[1], 가해자가 보고를 받는 선임일 수 있으며[4][6],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군 행사 조직에 대한 불신[1][4][6], 폐쇄적인 조직에서 계속 함께 근무해야하는 상황[4][8],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인권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9], 여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통념으로 인한 남성 피해자들의 침묵[5] 등이다.

군대 내 성희롱이 우려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성희롱이 권력을 행사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폭력적 도구로 공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4][5][10][11][12]. 신입병사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성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을 강요받고,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을 이른바 통과의례로 견뎌내야 하는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남성 간, 선임 병사와 신입 병사 사이에 발생하고 위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희롱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4][5]. 신입 병사가 선임이 되면 이러한 권력형 성희롱은 죄의식 없이 되풀이 되며,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묵인되고 방관된다면, 향후 제대 후 사회에서도 이러한 관행은 무감각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5].

또한 연구자들은 군대 내 성희롱이 성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군인이 그렇지 않은 여성군인에 비해 14배나 성폭행을 당했으며, 남성 군인의 경우 성희롱을 경험한 군인이 그렇지 않은 군인에 비해 45배나 성폭행을 더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성희롱 피해와 성폭행 피해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13]. 군대 성폭력을 연구한 손기화(2012)는 명령과 복종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군대는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이 일어나고, 폭력이 합리화되어 폭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폭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

는 점을 우려하였다[4].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이 내포하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군대 내 성희롱은 다른 환경과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성희롱을 경험한 여군은 이직의도가 높고, 조직만족도와 사기는 낮았다[7]. 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군대 내 성희롱은 구성원의 전문성 개발과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6][14][15], 가해자와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연구자들은 군대의 업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인권침해와 스트레스는 군의 기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1][4][7]. 또한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은 친밀감과 결속감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있으며[4], 장난과 재미라는 논리로 합리화되고 있어[5],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20대 청년들이 향후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인식은 크게 강화되진 않았다. 2017년 해군대령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 공동대책위원회(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16],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였다[9].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희롱이 만연된 환경에서 성폭행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성적농담과 성희롱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군대 하위문화의 만연, 폐쇄성과 위계질서로 인해 문제가 묵인되고 방관되는 상황, 특히 징병제로 인해 매년 막대한 수의 청년들이 그러한 하위문화에 노출되고 성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성희롱 문제는 심도 깊게 조사되고 연구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간 군대 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고, 성폭력 조사나 인권조사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방부가 주관하는 전수조사 또한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연구수행에 한계점들이 들어

났다. 또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라는 행동에 대한 인식조사와 이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군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특정 집단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는 그동안 단 한건도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국외에서 실시된 연구,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향미(2004)[17], 이나영 외(2014)[1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박선영(2017)[19]과 Briere와 동료들(1992)[20]의 대학생 조사, Boudin과 동료들(2010)[21]의 해군조사에서는 연령은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의 피해자가 대다수가 여성임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이나영 외(2014)[18], 이영란 외(2013)[22], Sipe와 동료들(2009)[23], Briere와 동료들(1992)[20] 등 국내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성별은 유의미한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 군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Vogt와 동료들(2007)[24], Boudin과 동료들(2010)[21], Thomas(1995)[25]의 연구에서도 여성 군인이 남성 군인보다 주어진 행동을 더 강하게 성희롱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박선영(2017)[19]의 연구에서는 성별은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군대는 엄격한 직급중심의 조직이며 권력형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 조직이다. 국내에서는 연구된 바는 없지만 해외 연구에서는 Boudin과 동료들(2010)[21], Sorenson과 동료들(1998)[26] 두 조사 모두 군인들의 직급이 높을수록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국에서는 군인들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신고, 단속과 처벌이 강함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종교의 유무, 종교적 신념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박선영(2017)[19]의 대학생 대상 연구, Boudin과 동료들(2010)[21]의 해군 대상 성희롱 연구에서는 종교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공감능력은 왜곡된 인식, 일탈과 범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Wheeler와 동료들(2002)[27]의 성범죄자 연구, 김중구(2017)[28]의 경찰대상 강간 인식 연구, 박선영(2017)[19]의 대학생 대상 성희롱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응답자 일수록 강간의 위험성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강했으며 이러한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평등 의식은 성과 관련된 일탈과 범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영란 외(2013)[22]의 대학생 대상 연구, Vogt와 동료들(2007)[24]의 군인대상 연구, Toker (2003)[29]의 일반인 대상 연구에서는 성평등 의식이 강한 응답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연구인 박선영(2017)[19]의 대학생 대상 성희롱 인식 조사에서도 성평등 의식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성평등 의식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남성 군장병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고,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을수록, 남성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희롱/성추행/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Rosenburg(1985)는 자존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가치를 인정하는 주관적 평가이며,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 불안, 분노, 공포 등의 부정적 심리 경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43]. 이에 공감능력

과 함께 자존감은 왜곡된 인식, 일탈, 비행, 범죄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9][30]. 박선영(2017)의 대학생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응답자들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었다[19].

성희롱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이라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징계, 예방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성희롱은 사회 규범에 위반되는 일탈행동이며, 성추행과 성폭력 등 더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위험한 행동이다. 따라서 성희롱 영향요인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일탈과 범죄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기 통제력과 일상적 긴장도 성희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은 범죄학자인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의해 발전된 범죄이론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31]. 박현수와 정혜원(2018)의 청소년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2] 이성식(2011)의 청소년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성희롱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과 사이버 상의 일탈과 비행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33].

일상적 긴장은 범죄학자 Agnew(1992)에 의해 제기된 바, 목표달성을 실패했을 때, 기대와 성취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 부정적 자극이 출현하였을 때 긴장(strain)이 발생하며 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34]. 일상적 긴장이론 또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일탈, 비행, 범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일상적 긴장이 성희롱의 영향요인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박현수와 정혜원(2018)[32] 이성식(2006)[35]의 청소년 연구에서 일상적 긴장은 언어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군대라는 상하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일상에서의 긴장은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조사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분석 틀과 연구표집

그간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성희롱 인식은 조사되었으나, 군 장병이라는 집단의 성희롱 영향요인은 조사가 되지 않은 바, 대학생, 외국에서 실시된 군인 대상, 일반인 등의 성희롱 인식 영향요인 연구를 검토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성별, 신분, 복무기간, 결혼상태, 자녀유무, 딸의 유무, 여성남매(자매) 유무,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과 군생활 만족도, 음주회식 정도, 공감능력, 성평등의식, 자존감, 일상적 긴장, 자기 통제력 등을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군 장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지방 소재 한 부대 내에서 일반 사병과 직업군인을 포함한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익명성, 자발적 참여 등을 고지한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사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한 답변을 한 21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99명의 설문지가 분석됨으로서 응답률은 96%였다.

3.2 연구변인

3.2.1 종속변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에 사용된 14개의 성희롱 유형이 사용되었으며[18] 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은 67.136%로 나타났다. 14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이 .950, Bartlett 검정에서 χ^2 이 46784.409($p < 0.001$)로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14개 문항이 모두 1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성희롱 심각성 Cronbach's 값은 .960으로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3.2.2 독립변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군생활 만족도, 음주회식 정도, 공감능력, 성평등의식, 자존감, 일상적 긴장, 자기 통제력 등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신분, 복무기간, 결혼상태, 자녀유무, 딸의 유무, 여성남매(자

매) 유무,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이 조사되었다. 신분과 관련해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군무원 등을 제시하였으나, 분석시에는 일반 사병(병사)와 직업군인으로 양분화하였다. 종교는 있다와 없지로 조사하였으며, 종교적 신념은 매우약함(1)~ 매우강함(10)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념을 표시토록 하였다.

군생활 만족도 역시 매우불만족(1)~ 매우만족(10)을 제시하였으며, 음주회식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주 0회~ 주 7회를 응답으로 제시하였다.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창호 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7개 항목의 공감능력 척도가 사용되었다[36].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509, 초기고유값=1.031)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 =.901)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이 개발한 80개 항목의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 KGES)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534, 초기고유값=1.018)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 =.987)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승현 외(2015)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연구에서 사용한 10개 항목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37]. 응답으로는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578, 초기고유값=2.18)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 =.945)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일상적 긴장은 최수형과 박현수(2015)[44]의 연구에서 사용된 12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응답으로는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긴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547, 초기고유값=2.09)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 =.967)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승현 외(2015)[37] 연구의 12개 문항, 5점척도 응답이 사용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609, 초기고유값=2.46)과 신뢰도 분석(cronbach's a =.957)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한 499명 군장병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92.4%)이 여성(7.6%)보다 많으며, 신분은 부사관(60.2%)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45.8%)과 미혼(51.2%)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와 관련해서는 212명(43.1%)이 자녀가 있으며, 이 중에서 150은 딸이며, 조사대상자의 50.6%가 누나, 여동생, 언니 등 여자자매나 남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1.71세이며, 19세부터 54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은 평균 11.02633년이며 최대 34년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과 가정형편은 평균이 각각 4.57과 5.94로 나타났다. 군 생활 만족도 평균은 7.14로 중간값인 5 이상을 상회하며, 음주회식은 주 평균 1.32회였다. 공감능력의 평균은 3.66, 성평등의식의 평균은 3.65, 자기통제력의 평균은 3.51로 세 개의 변수 모두 중간값인 3을 상회하였다. 자존감의 평균은 4.06으로 다른 변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적 긴장의 평균은 1.94로 중간값인 3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군 장병의 자존감은 높고, 일상적 긴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평균 4.39로 중간값을 상회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gender	women	38	7.6			
	men	461	92.4			
position	commissioner officer	27	5.4			
	warrant officer	29	5.8			
	noncom	300	60.2			
	soldier	122	24.5			
	civilian military employee	20	4.0			
marital status	married	228	45.8			
	unmarried	255	51.2			
	divorced	7	1.4			
	separated	1	0.2			
	others	7	1.4			
having children	no	280	56.9			
	yes	212	43.1			
having daughter	no	289	65.8			
	yes	150	34.2			
having sisters	no	240	49.4			
	yes	246	50.6			
religion	buddhism	74	14.9			
	protestant	114	22.9			
	catholic	54	10.8			
	others	14	2.8			
	none	242	48.6			
age	average 31.71		9.807	19	54	
service period	average 11.02 year		9.652	0	34	
religious faith	average 4.57		2.584	1	10	
economic status	average 5.94		1.433	1	10	
military life satisfaction	average 7.14		1.976	1	10	
drinking/ congregate dining	average 1.32 per week		1.021	0	6	
empathy	average 3.6686		.47912	1	5	
gender equality	average 3.6536		.49204	1.63	5	
self esteem	average 4.0607		.52575	2.71	5	
self control	average 3.5119		.61401	1	5	
general strain	average 1.9414		.60794	1	4.67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verage 4.39		.60571	1	5	

4.2 상관관계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명목변수에 해당하는 성별, 신분, 결혼상태, 자녀/딸/여자남매 유무, 종교 등을 제외한

연령, 복무기간,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과 성희롱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2 참조).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복무기간,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은 성희롱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s 1

		1	2	3	4	5
1. age	pearson	1				
	frequency					
2.service period	pearson	.959***	1			
	frequency	473				
3. religious faith	pearson	.169***	.138**	1		
	frequency	444	440			
4. economic status	pearson	-.072	-.062	.166***	1	
	frequency	485	479	458		
5.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pearson	.026	.030	.034	.015	1
	frequency	484	478	456	497	

* p< 0.05; ** p< 0.01; *** p< 0.00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더미변수에 해당하는 성별(남성), 신분(사병), 자녀/딸/여자남매(자매) 유무 등은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성별과 신분(사병)이다. 성별에 따라 성희롱 인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성희롱 인식(p<0.01)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등 직업군인의 성희롱 인식 평균값이 사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유무, 딸유무, 여자남매(자매) 유무 등에 따른 성희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 사병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등 직업군인의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2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gender	women	average	4.6931	
		frequency	37	
	men	average	4.3691	
		frequency	460	
	F			9.965**
	position	professional soldier	average	4.4270
frequency			374	
soldier		average	4.2875	
		frequency	122	
F			4.905*	
having children	no	average	4.3646	
		frequency	279	
	yes	average	4.4282	
		frequency	211	
F			1.318	
having daughter	no	average	4.3422	
		frequency	287	
	yes	average	4.4500	
		frequency	150	
F			2.966	
having sister	no	average	4.3664	
		frequency	239	
	yes	average	4.4125	
		frequency	245	
F			.689	

* p< 0.05; ** p< 0.01; *** p< 0.001.

군생활만족도, 음주회식, 공감능력, 성평등의식, 자아존감, 자기통제력, 일상적 긴장 등 주요 변수와 성희롱 인식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생활만족도는 성희롱 인식(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회식은 성희롱 인식(p<0.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 자존감, 자기 통제력은 모두 성희롱 인식(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긴장은 성희롱 인식(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3

		1	2	3	4	5	6	7	8
1. military life satisfaction	pearson	1							
	frequency								
2. drinking/ congregate dining	pearson	.103*	1						
	frequency	497							
3. empathy	pearson	.082	.021	1					
	frequency	494	491						
4. gender equality	pearson	.111*	-.102*	.236***	1				
	frequency	458	456	452					
5. self esteem	pearson	.298***	-.086	.285***	.355***	1			
	frequency	491	488	485	449				
6. self control	pearson	.235***	-.062	.237***	.228***	.342***	1		
	frequency	496	493	490	456	487			
7. general strain	pearson	-.336***	.097*	-.235***	-.362***	-.633***	-.486***	1	
	frequency	489	486	483	448	480	485		
8.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pearson	.226***	-.098*	.292***	.544***	.371***	.309***	-.467***	1
	frequency	498	495	492	456	489	494	487	

* $p < 0.05$; ** $p < 0.01$; *** $p < 0.001$.

4.3 다중선형 회귀분석

군 장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위해 1단계와, 2단계에 거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와 같이 1단계는 연령, 성별(남성), 신분(사병), 복무기간, 결혼상태(미혼), 자녀유무, 딸유무, 여자남매(자매)유무, 종교유무,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성희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희롱 인식이 낮아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F=1.883$, $p < 0.05$). 2단계는 연령, 성별(남성), 신분(사병), 복무기간, 결혼상태(미혼), 자녀유무, 딸유무, 여자남매유무, 종교유무,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군생활만족도, 음주회식,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 자아존감, 자기통제력, 일상적 긴장 등이 성희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2단계의 설명력이 45.3%로 증가

하고 있어 주요 변수들이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음주회식($p < 0.05$), 공감능력($p < 0.05$), 성평등 의식($p < 0.001$), 일상적 긴장($p < 0.001$)이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866$, $p < 0.001$). 반면에 다른 변인들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은 아니었으며,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연령은 2단계에서는 주요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음주회식,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 일상적 긴장이 성희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음주회식이 증가할수록, 일상적 긴장이 증가할수록, 성희롱 인식은 감소하며,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이 증가할수록, 성희롱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베타값을 살펴보면 군장병의 성희롱 인식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일상적 긴장(.365)이며, 이후 성평등 의식(.330), 공감능력(.117), 음주회식 횟수(.109) 순이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step 1		step 2	
		t		t
age	-.427	-2.077 *	-.010	-.064
gender(men)	-.111	-1.853	-.026	-.550
porision(soldier)	-.127	-1.591	-.108	-1.691
service period	.346	1.718	-.074	-.481
marital status (unmarried)	.293	2.321	.041	.422
having children	.346	2.416	.073	.665
having daughter	.021	.252	-.009	-.144
having sister	.032	.561	.052	1.209
religion	.031	.421	.006	.114
religious faith	.025	.332	.043	.765
economic status	.010	.169	-.058	-1.315
military life satisfaction			.066	1.339
drinking/ congregate dining			-.109	-2.394 *
empathy			.117	2.610 *
gender equality			.330	6.646 ***
self esteem			-.017	-.297
self control			.048	.944
general strain			-.365	-.5765 ***
F	1.860		15.866	
R2	.062		.484	
ΔR2	.028		.453	
significance	.044		.000	

* p< 0.05; ** p< 0.01; *** p< 0.001.

5. 정책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 장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상적 긴장이 증가할수록, 음주회식 자리가 증가할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반면, 성평등 의식이 증가하고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 또한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군 장병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군 장병의 일상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권장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군 내에서는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스포츠, 취미/교양, 관람/감상, 사교, 놀이/오락,

휴식 등 군 장병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8].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 비해서는 시설이 낙후되어있으며, 시간이 부족하며 제약이 많이 따른다[38].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사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군 장병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 부대는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부를 대상으로는 분기별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 군대라는 공간이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조직이었으며, 남성성을 강화하고 고취시켰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특히 양성평등적 사고와 생활방식은 중요하다. 군대라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전문강사의 질을 높이고, 수를 확대하여 간부는 물론, 일반 사병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군 생활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공감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해야 한다. 군대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명령이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공감능력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감능력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일탈과 범법행위의 주된 영향요인이며[37][39], 대인관계의 주된 결정요인이다[40]. 따라서 미술, 음악, 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활용한 공감능력 강화방안이 이미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다. 군대에서도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반 사병뿐만 아니라 직업 군인들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군 장병들의 의견을 반영한 음주·회식 문화 개선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음주가 동반되는 회식자리는 성희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자리이다. 이에 해군은 2014년 8월부터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오히려 성희롱과 성추행은 더 증가했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1]. 국방부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회식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부대 내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고, 여군과 장교의 참여가 적은 점 등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의 성희롱 인식조사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향후 군대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M. J. Lee, J. S. Yoon, S. Y. Jeon, & J. R. Kwon.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tricted reporting system for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7.
- [2] Maeil Business Newspaper, July, 8th, 201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7/429185/>
- [3] Suicide incident in 2003, 2013, 2016 and suicide attempt in 2017. Hankookilbo, May, 25th, 201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251574885647>.
- [4] K. H. Sohn. Research for sexual assault in military. Doctoral dissertation of Dongkuk University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2012.
- [5] I. S. Kwon, E. Kim, H. Y. Kim, M. S. Noh, K. W. Lee, D. W. Lee, M. L. Hong. Investigating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4.
- [6] C. R. Gedney, D. S. Wood, B. Lundahl, R. P. Butters. Gadney et al., Sexual Assault Prevention efforts in the U.S Air For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00(0), 1-21, 2015
- [7] S. S. Ahn, S. Y. Park, H. Y. Kim, Y. J. Choi, B. J. Kim, D. W. Kim. Women soldiers'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2.
- [8] S. Cernak. Sexual Assault and rape in the military. Michigan Journal of Gender and Law, 22(1), 207-241, 2015.
- [9] J. H. Lee, C. W. Choi, Y. S. Hwang & H. H. Yoon.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protection syste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4.
- [10] M. Scarce. Same-Sex Rape of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5(4), 171 - 173, 1997.
- [11] T. S. Nelson. For love of country: Confronting Rap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U.S. Militray. New York, NY: Haworth., 2002.
- [12] P. H. Jang. Wonmen, Body, Sex. Seoul, Korea: Another Culture, 1999.
- [13] Department of Defenc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program procedures. 2013.
- [14] S. Cernak. Sexual Assault and rape in the military. Michigan Journal of Gender and Law, 22(1), 207-241, 2015.
- [15] C. Lawhorne-Scott, D. Philpott, J. Scott.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Rowman & Littlefield, 2014.
- [16]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ender-equal military without sexual assault. Korean Women Link, 2017.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9569>
- [17] Jung H. M. Jung. A study on the Sexual Harass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0(3), 291-299, 2004.
- [18] N. Y. Lee, K. S. Kim, & H. J. Lee. Workers' Conceptualizations and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Public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1(0), 33-58, 2014.
- [19] S. Y. Park.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3(1), 87-110, 2017.

- [20] J. Briere, D. Henschel, & K. Smiljanich. Attitudes toward Sexual Abuse: Sex Differenc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98-406, 1992.
- [21] P. L. Bouldin & A. M. Grayson.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among U.S. Navy officers, 2010.
- [22] Y. R. Lee, M. K. Kim & S. E. Choi.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es*, 24(1), 40-50, 2013.
- [23] S. Sipe, D. Fisher, & C. Johns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Reality Versus Fic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2009.
- [24] D. Vogt, T. Bruce & J. Staffird, J. Attitudes Toward Women and Tolerance for Sexual Harassment Among Reservists. *Violence Against Women* Volume 13(9), 879-900, 2007.
- [25] M. Thomas. Gender in Conceptualizing sexual Harassment. *Navy Personnel Research and Technical Report*, 95(5), 1995.
- [26] R. C. Sorenson, M. G., Mangione-Lambie, R. C., Luzio. Solving the Chronic Problem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mployee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Sexual Harassment.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volume 34(2), 457-491, 1998.
- [27] J. G. Wheeler, H. William & J. Dahl. Sexually Aggressive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5), 759 - 775, 2002.
- [28] J. K. Kim.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of Rape among Central Police Academ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f Ha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ing Administration, 2017.
- [29] Y. Toker. Individual Differences Factors affecting workplace sexual harassment perceptions. Master thesi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social science. 2003.
- [30] W. A. Mason. Stress exposure, race, and young adult male crime. *Sociological Quarterly*, 44, 243 - 269, 2001.
- [31] M. R. Gottfredson &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32] H. S. Park & H. W. Jung. The factors affecting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9(2), 217~240, 2018
- [33] S. S. Lee. A Conditioning Effect of Individual Personality and Social Learning Variables on Juvenile Delinquency : Testing Two Theori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347~368, 2011.
- [34] R. A. Agnew. Foundation fo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1992.
- [35] S. S. Lee. Low Self-Control, Its Mediated and Interaction Effect on Drug Abus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333~362, 2006.
- [36] C. H. Lee, N. M. Shin & E. B. Ha.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ments to prevent i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 [37] S. H. Lee, J. Y. Jung, T. H. Kwang & M. Y.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5.
- [38] J. K. Park. Measurement of Affecting Leisure Activities on the Decreases of Psychological Burnout, Violence Inclination, and Beating in the Military Arm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 33(3), 67-87, 2018.
- [39] J. S. Yoon. Empathy Deficits as a Predictor of Sexual Offenses beyond Abuse Experiences.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2), 99~114, 2011.

- [40] J. H. Lee & Y. A.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2), 579-594, 2014.
- [41] News 1, September, 25th, 2015.
<http://news1.kr/articles/?2435051>
- [42] Hankyoreh news, August, 21th, 20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7641.html#csidx1b2d4a8bd679fceaadaf6837e65160f>
- [43] M. Rosenberg.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d. Academic Press : New York, 1985.
- [44] S. H. Choi & H. S. Park. A study on Juvenile felony crime. Korean Institute of Crime.

————— [저 자 소 개] —————

박선영 (Sun - Young, Park)
 1993년 2월 이화여자 대학교 불어불문 학사
 2004년 12월 Indiana State University, criminology 석사
 2009년 8월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criminology 박사
 email : youlmoo@hanmail.net

연구분야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male prisons. Asian Forum for Corrections, 12(3), 73-102, 2018.
 Expanding Halfway House for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31(1), 71-103, 2018.
 Restoring Relationships in Corrections : Restorative Correction, Correction Forum, 11(2), 1-29, 2017.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3(1), 87-110, 2017.
 Introduc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model for the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 Training in Central Police Academy.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6(4), 71-96, 2017.

주요경력
 2015-2017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장
 2016-현재 한국경찰연구 연구이사
 2017-현재 소년정책학회 편집위원
 2018-현재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이사
 2018-현재 가천법학 편집위원

박현나 (Hyeon-Na, Bak)
 2006년 2월 전북대학교 사회학/신문방송 학사
 2010년 8월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criminology 석사
 2010~ 현재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criminology 박사후보

